

호주인과 호주 교민의 주거문화 비교를 위한 기초 연구(II)*

- 호주인의 주거공간 및 주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Living Arrangement of Australians for Cross-Cultural Study with Korean Immigrants in Melbourne, Australia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연구교수 이 영 심

교 수 이 상 해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YoungShim Lee

Professor : SangHae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이론적 배경

IV. 결과해석 및 논의
V. 결과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Many ethnic groups hav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each culture has developed with its own traditions. The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is getting more active through acculturation and cultural cont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about the domestic living of Australians in order to compare with Korean immigrants in the form of a Cross-Cultural study. For this, usage of domestic space and seating style of 53 Australian households in Melbourne were analyzed. Ethnographic research with questionnaire was us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open plan type combining the kitchen, dining and living areas was the most popular one for Australians and they are very satisfied with that type. 2. The laundry room has been planned traditionally and Australians demand to be able to dry their laundry and do ironing in there additionally. Most of Australians were satisfied with separated toilet and bathroom. A drain hole on the floor of the bathroom was not essential for most Australians. 3. Australians were do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living areas and they also enjoy getting together in the kitchen and dining areas. 4. The seating style of Australians was generally the chair-seating style. However, they sometimes

Corresponding Author: Young Shim Lee,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300 Chunchun-dong, Jangan-gu, Suwon, Kyonggi-do, 440-746, Korea Tel: 82-31-290-7577 Fax: 82-31-290-7570 E-mail: yslee99@hanafos.com

* 본 논문은 2005년도 BK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made a bed for guests on the floor and watched TV and treated guests with both chair seating style and floor seating style. 5. Australians were satisfied with using carpet presumably for its warmth. 6. Many Australians took off their shoes inside of the house for hygienic reason. Most people organized the shoes in the cabinet of the bedroom. 7. The most popular heating system was ducted heating for Australians and they were very satisfied with it because it was suitable for the weather in Melbourne. 8. The living room was the most important one for Australian families and they thought that it should be decorated well for entertaining guests. It was also considered that brightness of the light was enough for most Australians.

주제어(Key Words): 비교문화연구(Cross-Cultural Study), 문화적 배경(cultural background), 전통(tradition), 한국 교민(korean immigrants), 호주인(Australians), 주거 공간(domestic space), 기거 양식(seating style)

1. 서론

인간의 생활을 담는 주거는 자연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거주인의 생활양식, 관습 등의 내부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형성된 복합체이다. 각 민족 집단의 주거는 타 집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구성방식과 생활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전통의 성격을 띠는 주거문화로서 발전하게 된다. 특정 집단의 사회적, 문화적인 가치와 욕구를 표현하는 주거문화는 해당 집단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 발전하며 변화된 환경에서도 그 중심 요소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현대 사회가 가지는 특성은 각 민족 집단들의 생활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이는 각 집단 간의 접촉이 빈번해지며 문화 교류의 가능성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문화변용(acculturation) 혹은 문화접촉(culture contact)의 과정을 통하여 생활의 여러 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주거문화는 우리 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 교류에서 비중이 큰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라포르트(Rapport, 1960)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의 형태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관련시켜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주생활 형태 및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주거관련 분야에서 스스로의 주거문화를 타(他) 주거문화와 비교함으로써 주거계획의 대안을 얻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도되어 왔다. 로렌스(Lawrence, 1982)는 영국과 호주의 주택을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거 공간의 계획과 사용상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벡텔

(Bechtel, 1989)은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거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리슈코 오자키(Ritsuko Ozaki, 2002)는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영국과 일본 주택 거주자의 주생활을 분석하여 문화가 주택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한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의 주생활 분석을 통하여 다른 주거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을 파악하고 지배 문화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통 주거요소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정무웅, 1988; 이희봉, 1988; 조성희, 1996). 또한, 이현정(1992), 박선희(2003) 등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활양식을 분석하여 이들의 주거 아이덴티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도영(1998)은 한국교민의 주거 조절을 분석하여 전통 문화적인 주거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 우리나라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아동기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인 경험이 현재 거주 공간에서의 개인 영역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등이 있다(김원필, 이기현, 2003).

서로 다른 문화권의 교류가 점차로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 문화면에서의 교류가 각 집단의 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본다. 각 집단의 주거 문화에서 전통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상호 접촉 및 교류를 통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분석은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거문화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또한 평가할 수 있어 다양한 주거 계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호주인과 호주 교민의 주거문화를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역시 비교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호주 교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공간 및 주생활 분석을 행한 바 있다¹⁾. 본 연구는 이를 잇는 후속 연구로서 호주 교민의 비교 대상인 호주인의 주거공간과 주생활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호주인의 주생활 분석을 통하여 호주인의 관습적인 주생활 문화를 탐색하는데 있으며 또한 호주인의 관습 문화 속에서 타 문화가 혼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등을 분석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점차 그 관심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호주 지역의 주택 및 주거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多)문화권 사회인 호주에서 다양한 주거 문화를 고려한 주택을 계획할 때에 기초 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호주의 중심 도시인 멜버른(Melbourne)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2004년 7월 19일 - 9월 24일 사이에 행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다(多)민족 국가인 호주에서 빅토리아(Victoria) 주의 중심도시인 멜버른은 호주 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멜버른이 다양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주거 문화면에서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본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현장 연구는 문화인류학에 근원을 둔 문화기술학(Ethnography)의 방법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과 면담을 행하였으며 각각의 주택에 대한 사진 촬영과 실측을 행하였다. 조사대상 가정은 모두 53가정이었으며 각 가정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각 가정에서의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였으며 질문지에 있는 문항을 기본으로 주부에게 질문하고 이에 따르는 부연 설명 혹은 추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녹음하고 필

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거문화 간의 비교를 위한 평가항목은 LDK 연결유형 및 기타 평면구성, 주생활 내용, 주거설비 및 사용, 그리고 주거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이를 위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각 주택의 LDK유형과 만족 정도²⁾, 개조 여부와 내용, 각 실별 활동내용, 각 활동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각 실별 바닥재, 난방 방식과 만족정도, 주택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호주인의 주거공간 및 주생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호주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 호주인을 대표하는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III. 이론적 배경

1. 조사대상 지역의 자연 기후적 배경과 특성

호주는 면적 770만 평방킬로미터의 대륙 섬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북부지역의 80%와 서부지역의 40%가 열대 기후에 속해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온화한 온대 기후이다. 호주대륙은 1770년 8월 영국의 선장 쿡에 의해 발견된 이후 영국령이 되었다. 초기에는 영국의 죄수 유형지로서 사용되었으나 1793년에 자유 이민이 시작된 이후 인구가 경제력이 급속하게 성장되었고 1901년의 연방자치제를 거쳐 1926년에 완전하게 독립하였다.

현재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로 구성된 연방 민주 국가이며 6개의 주(빅토리아(Victoria),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퀸스랜드(Queensland),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타즈마니아(Tasmania) 등)와 2개의 특별구(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캐

- 1) 본 연구의 결과는, '호주인과 호주교민의 주거문화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2호, 2005)로 보고하였다.
- 2) 조사대상자의 만족 정도는 측정이 필요한 특정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방식(매우 만족스럽다 5점-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1점)으로 답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평균점수를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피탈 테리토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등)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인구는 약 1천 8백만 명이며 인구의 대부분이 동부 및 동남부 해안 평원 지역을 따라 발달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총인구의 1/3정도가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1/4정도가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멜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 주는 22만 7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는 약 4백 6십만 명으로 호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날씨의 변화가 심하고 시간별 기온의 차이가 매우 큰 특성이 있다.

멜버른 지역의 주택 유형은 81.4%가 단독주택이며 약 70%의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Melbourne in Fact, 2001). 멜버른 지역의 주택은 90% 이상이 브릭 베니어(brick veneer)형식인데 이는 건물의 뼈대를 나무(timber stud)로 세우고 외벽은 한 층의 벽돌로 내벽은 플라스터(plaster)로 마감하는 형식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 외의 주택은 벽돌(solid brick house) 혹은 나무(weatherboard house)를 사용한 주택 등이다(Danis Hogan, 2005)³⁾. 멜버른 지역의 한인 이민은 1970년대 초에 정부 장학생의 이주를 시작으로 1975년에 월남이 공산화된 이후에는 재월파전 기술자들이 이주하는 등의 정도로 그 수가 미미하였으나 1980년도 중반 이후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인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멜버른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1만 명 정도이며 교민들의 7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이광수, 2005)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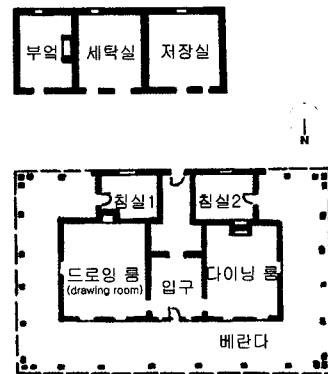
2. 호주 주택의 시대별 변천과 주생활의 변화⁵⁾

1) 정착기 - 1900년 이전의 시기

초기의 호주 건축은 주로 영국에서 수입한 재료와 영국식 디자인을 사용하여 건축하였다. 그러나 호주는 각 지역마다 기후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건축 재료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점차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조오지안 스타일(Georgian style; 1800

년-1840년), 클래식(Classical; 1840-1890), 고딕(Gothic; 1840-1880), 빅토리아 이탈리아네트(Victorian Italianate; 1850-1880), 테라스(Terrace; 1840-1910), 빅토리아 붐(Victorian Boom; 1880-1900), 퀸즐랜더 스타일(Queenslanders; 1860년대) 등으로 분류된다. 1840년대에 목재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주택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1850년대 초기에는 영국에서 조립식 주택이 들어오기도 하였다(Ciddor; Anna, 1999).

19세기의 주택은 벽돌과 돌, 혹은 제재된 목재 등을 사용하였는데 19세기말에는 나무로 만든 웨더보드 커티지(weatherboard cottage)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 형태는 단순한 사각형으로 평면의 중심에 현관으로부터 이어지는 긴 복도가 있었고 복도를 중심으로 하여 드로잉 룸(drawing room)이나 팔러(parlour)가 있었으며 다이닝 룸과 부엌, 두개 이상의 침실과 욕실 등으로 구성되었다(Ian Evans, 1983)(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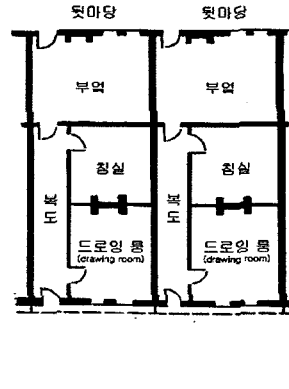


<그림 1> 초기 시기의 조오지안 스타일 주택 평면 (Ciddor, Anna, 1999, p23)

- 3) 본 내용은 빅토리아주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ssion) 소속 기술연구부(Technical & Research Services) 담당자(Manager)와의 면담을 통한 내용임.
- 4) 멜버른에 이주한 지 17년 째인 교민으로 현재 호주인 및 한인 주택의 중, 개축 및 각종 보수관련 작업을 하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 5) 본 내용은 호주 주택에 관한 문헌과 주택, 건축 관련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드로잉 룸이나 팔리는 손님 접대용 방으로서 주택에서 가장 잘 꾸며놓은 방이었다. 드로잉 룸이 손님 접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팔리는 가족용 거실인 sitting room이었다. 평소에는 여자들이 드로잉 룸에서 바느질과 독서를 하였으며 때때로 가족모임을 하기도 하였다. 가족 식사는 다이닝 룸에서 했는데 때로는 다이닝 룸에 폴딩 도어(folding door)를 만들어 방과 통하도록 하였다. 식사 후 남자들은 다이닝 룸에서 여자들은 드로잉 룸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다. 1850년대 이전에는 주택 내부에 욕실을 두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고 대부분 아이들은 부엌에서, 어른들은 부엌에서 물을 운반해 침실에서 씻었다. 1860년대에 들어와 주택 내부에 욕실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부엌은 1850년대까지 주택 본채에서 분리되어 있었다(Ian Evans, 1983). 그러나 20세기 초가 되면서 일반 가정에서 하인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진 한편, 물 공급 체계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인 배관설비가 고려되었고 가정 연료가 다양해지며 조리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러 요인들에 힘입어 부엌이 주택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Lawrence(1982)는 1850-1890년 사이에 부엌과 세탁공간이 주택 본채로 합해지는 모습을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부엌은 여전히 다른 주거 영역에서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호주 주택의 특징적인 요소인 베란다는 1800년-1810년 사이에 처음으로 계획되었다. 베란다는 뜨거운 태양 열이 외벽에 바로 닿는 것을 막아주며 규모가 큰 주택에서는 각 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복도로 사용하는 등 기능 면에서 호주 주택에 부합되는 점이 많아 19세기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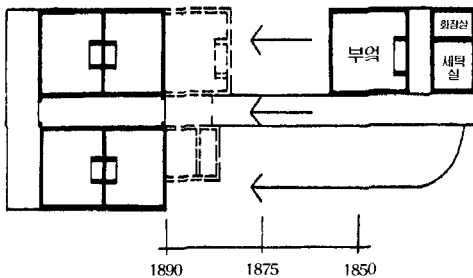
<그림 3> 19세기 후반기의 테라스 하우스 주택 평면 (Ciddor; Anna, 1999, p26)

세기 초기에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발전하였다(Ian Evans, 1983). 19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주택은 테라스 하우스였다. 이 시기의 테라스 하우스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계층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소규모의 땅에 벽과 울타리, 배수관, 하수관 등을 공유하도록 한 경제적인 주택이었다(Ciddor, Anna, 1999)(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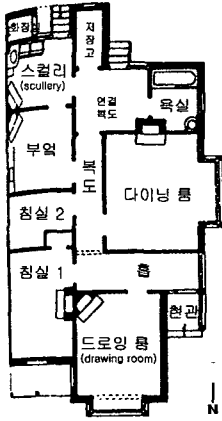
2) 1900년대 초기 -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

이 시기는 에드워드디안(Edwardian: 1900-1920), 캘리포니아안 방갈로(Californian Bungalow; 1915-1930), 스페니시 미션(Spanish Mission; 1920-1930), 워터폴 프론트(Waterfall front; 1930-1940)등의 건축 양식이 나타난 시기였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별도의 건물들이 없어지고 주택 본채에 욕실, 부엌, 세탁실, 화장실 등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초기부터 가정부를 고용하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부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4>는 1900년대 초기의 주택 도면의 예이다. 현관 옆에 드로잉 룸이 있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다이닝 룸이 위치한다. 부엌이 분리되어 있으며 부엌 뒤에 스킨리(scutlery)를 두었다(John Archer, 1987). 스킨리는 조리 전에 씻기와 다듬기 등의 작업을 하는 곳으로 식사 후 식기와 조리도구들을 씻었으며 빨래를 비벼 빨거나 삶는 작업도 하였다(Ian Evans, 1983). 화장실은 욕실과 분리되어 주택의 뒷편에 위치하였다. 거실과 침실 등의 주요 공간은 주택의 앞쪽에,



<그림 2> 1850년-1890년에 부엌, 세탁공간, 화장실이 뒷 베란�다를 통해 주택 본채로 통합되는 모습 (Lawrence, 1982, p115)



〈그림 4〉 1908년 교외의 작은 빌라(villa) 평면
(John Archer, 1987, p152)



〈그림 5〉 1920년대의 주택 평면
(Peter Cuffley, 1989, p16)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서비스 공간은 뒤쪽에 배치한 형태였다(John Archer, 1987).

1920년대가 되면서 주택 건설이 활발해졌고 주택의 소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 가족 당 평균 자녀수가 1920년대에는 4명, 1930년대에는 2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주택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점차 규모가 작은 주택이 요구되었고 콤팩트(compact)한 주택을 만들기 위한 항목들이 개발되었다. 값싼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침실과 부엌에 붙박이 옷장(built in wardrobe)과 수납장(custom-built cupboards)을 계획했으며 침실과 베란다에 붙박이식 침대(built in bed)를 설치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전형적인 주택의 특성은 초기의 긴 복도가 없어지고 벽난로의 수가 줄었으며 천장의 높이가 낮아진 것이다. 또한 오래된 스타일의 다이닝 룸이 없어지고 단순한 sitting(앉는 방)룸 혹은 리빙 룸을 계획했는데 이는 건축비용과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림 5〉는 1920년대 주택 평면의 한 예이다. 침실과 거실 등의 주요 공간이 이전 시기보다 짧아진 복도 쪽으로 열려 있다. 다이닝룸 대신 sitting 룸과 리빙 룸을 계획했고 화장실은 주택의 뒤편에 있다(Peter Cuffley, 1989).

1940년대까지 건축 재료가 부족했고 주택 공급 또한 충분하지 않아 주택 가격과 건축 재료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주택의 크기도 제한되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었던 시기였으며 기술면

에서도 단순함과 정교함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시기였다. 1950년대에는 리빙 룸의 면적이 커지면서 다이닝 공간을 포함하기도 했다. 세탁실 및 다용도실은 주택 뒤편에 계획하였고 다용도실의 안쪽 혹은 그 옆에 화장실을 두었다. 1950년대에는 유럽에서 조립식 주택을 수입하기도 하였다(Peter Cuffley,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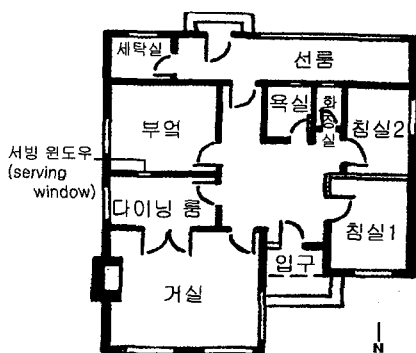
3) 1960년대 초기 - 1970년대 말까지의 시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주택의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다양한 주택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주택 이외에 플랫(flat)⁶⁾이 보편적인 주택 형태가 되었다. 이 시기의 주택형태인 티피컬 인터네셔널(typical international) 스타일은 세 개의 침실과 한 개의 욕실 그리고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오픈 플랜(open plan) 형식의 거실과 부엌으로 구성되었으며 간이차고(carport)나 차고(garage)가 포함되었다. 이전에 비해 벽난로가 줄었고 처음으로 주택 디자인에서 굴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Ciddor, Anna, 1999). 철과 강화 콘크리트, 큰 판유리 등의 새로운 건축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값싸고 실용적인 건축 기술을 적용하였다.

6) 호주에서 플랫(flat)은 2층 이상의 독립된 주택들이 한 부지에 대개 4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1960년대 초에 전형적인 현대 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L자형 주택이 그 예로 차고가 부속되어 있고 평평한 지붕을 장식적인 기둥으로 받친 형태였다. 덴스(dens: 응접 공간)와 림퍼스(rumpus: 자녀놀이 공간) 룸을 계획하기도 했으며 부엌에는 해치 웨이(hatchway)를 두어 다이닝 룸과 통하도록 하였다. 부엌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미국 잡지에서 본뜬 아일랜드 형 식탁(island bench top)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주택에서 장식(decoration)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때였다. 욕실에 화장실을 함께 계획하였고 욕실의 크기가 커지면서 시설이 화려해졌으며 두 번째 욕실 혹은 침실에 속한 욕실을 계획하였다. 한편, 1960년대부터 '프로젝트 홈'(project home)이라는 샘플(sample) 집을 건설했는데 이는 중간 혹은 그 아래의 소득계층을 위한 것이었다(John Archer, 1987).

〈그림 6〉은 1960년대 평면의 한 예이다. 현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복도를 거실과 침실이 둘러싸고 있다. 부엌과 다이닝룸은 분리되어 있으나 서빙 윈도우(serving window)를 통해 이어진다. 주택의 뒤편에는 세탁실 그리고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룸을 두었으며 화장실은 여전히 욕실에서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1970년 후반이 되면서 '환경'이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건축 또한 환경과 관계하여 계획되었다(John Archer, 1987). 특히, 1970년대의 유행파동으로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었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오래된 주택에 대한 리노베이션(renovation)이 붐을 이루었는데



〈그림 6〉 1960년대의 주택 평면
(Ciddor, Anna, 1999, p33)

이는 주택 투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자체가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4)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주택의 건설 및 계획 면에서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1980년 이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많은 인구를 일정한 범위 내에 거주시키기 위해 다층 주택의 건축이 권장되었다. 단독 주택의 부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유닛(unit)단지⁷⁾의 건설 역시 증가하였다. 아파트 또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특히 가족 수가 적고 간편한 생활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선호되고 있다(Chris Wight, 2004)⁸⁾. 주택의 리노베이션은 1980년대 이후에도 꾸준하며 오래된 주택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 1991년부터 주택 건축 시 단열 등의 에너지관련 사항들의 의무화를 법제화하였다. 1991년부터 에너지절약 사항을 준수한 주택에 '2 star home'을 부여하였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는 '5 star home'으로 그 기준을 높였다. 최근에는 생태주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일반 주택에 태양열 난방시스템이나 오수 탱크 등을 만들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Peter Nassau, 2004)⁹⁾.

지난 20여 년간 주택 평면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비격식 가족단위 공간(informal living area)의 발전으로 격식을 갖춘 식사실(dining room)과 거실(living area)은 사용 정도가 낮은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Dovey, 1992). 즉, 대부분의 주택에서 포말 라운지(formal lounge)의 개념과 기능이 약해지고 가족실

7) 호주에서 유닛(unit)은 단층으로 된 주택이 한 부지에 한 채 혹은 여러 채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단독주택의 뒷마당에 유닛을 지어 임대하거나 아예 단독주택을 헐고 3-4채로 구성된 유닛 단지를 만드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8) 본 내용은 빅토리아 주정부 관할 지속가능성과 환경(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부 소속 연구원(Senior Research Officer)과의 면담을 통한 내용임.

9) 본 내용은 빅토리아주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ssion) 소속 건축설비(Building Quality) 부 담당자(Director)와의 면담을 통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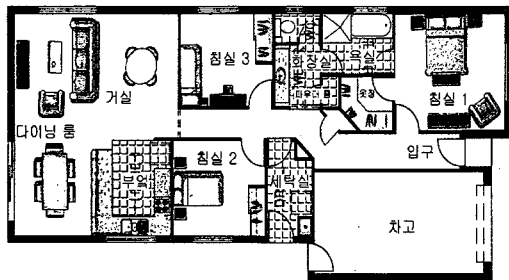
〈표 1〉 호주주택 공간의 시대별 특성

시기구분 주거공간	가족단란 공간	부 역	세 탁 실	욕 실
1900년 이전	드로잉룸/팔러	주택본체에서 분리.	주택본체에서 분리.	주택본체에서 분리.
1900년대 초-1950년대 말	잇팅룸/리빙룸	주택본체에 계획.	주택본체에 계획.	주택본체에 계획 / 화장실분리
1960년대 초-1970년대말	텐스/림퍼스룸이 부가됨.	부역과 식사공간이 해치(hatch)로 연결됨.	면적확대/ 부역과 연결하여 계획.	면적확대 / 화장실통합형 나타남. 침실부속 욕실 생김.
1980년대 초 - 현재	패밀리룸(가족실)이 발달함.	부역, 식사공간이 거실과 통합됨.	가사실로서 발전함.	욕실, 화장실의 통합과 분리 병행. 침실부속 욕실이 기본 설비됨.

(family room)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가족실은 부역, 다이닝 공간과 통합된 오픈 플랜(open plan)의 형태가 보편적이다. 또한 수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침실에 붙박이 벽장을 충분히 계획하며 부부 침실에는 워크인 클로젯(walk in closet)을 두기도 한다. 또한 주택 면적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침실부속 욕실을 두는 것도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주택 계획이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Andrew Mellios 2004 ; Archicentre, 2004)¹⁰⁾.

〈그림 7〉은 최근에 건축한 주택의 예이다. 주택의 뒤편에 부역과 다이닝 룸, 리빙 공간이 오픈 플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 앞쪽에 있는 부부침실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부속되어 있는데 입구를 달리하여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욕실과 화장실을 분리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호주 주택의 시대별 변천내용을 중심 공간별로 구분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7〉 현대 주택의 평면 (Devine 건축회사 주택 평면집, 2004)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연령 분포는 40-49세 미만이 41.5% 그리고 50세 이상이 37.7%로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47.3세였다. 평균 가족 수는 3.1명이었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79.2%)가 대부분이었다.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학력은 40.9%가 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학원 졸업 이상이 31.8%인 등 교육수준이 높았다. 현재 주부인 45.3%를 제외하고 30.2%가 교사, 간호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소득정도는 연 7만불-10만불 미만인 경우가 41.3% 그리고 5만불 미만이 23.9%였으며 다음은 5만불-7만불 미만(21.7%), 10만불 이상(13.1%)의 순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¹⁾. 조사대상 가정의 남편 직업은 행정관리직과 전문직이 각각 37.0%, 23.9%였다. 조사대상자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77.4%)이 가장 많았다.

10) 본 내용은 건축가인 Andrew Mellios와의 면담과 주택연구기관인 아키센터(Archicentre)가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11) 빅토리아 주정부가 2001년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멜버른(Melbourne)의 가구당 연간 소득수준은 52,000불-77,948불이 17.2%, 36,400불-51,948불이 14.2%, 15,600불-25,948불이 13.9%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멜버른 거주 한인회장과의 면담에서 조사지역 중산층의 연간 평균소득이 보통 5만불-8만불 정도이며 최근에는 평균 10만불-12만불 정도를 중산층으로 평가하기도 한다는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역시 위의 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이 본 조사지역에서 중산층에 속한다고 파악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53

변인	분류	f(%)
주부연령	40세 미만	11(20.8)
	40-49세	22(41.5)
	50세 이상	20(37.7)
	계	53(100)
가족수	4명 미만	27(50.9)
	4명 이상	26(49.1)
가족형태	부부 + 자녀	42(79.2)
	부부	11(20.8)
계		53(100)
	주부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학졸업 이하		18(40.9)
대학원 졸업 이상		14(31.8)
계		44(100)
남편직업	생산직	2(4.3)
	판매·서비스직	8(17.4)
	사무직	3(6.5)
	행정·관리직	17(37.0)
	전문직	11(23.9)
	기타	5(10.9)
계	46(100)	
부인직업	판매·서비스직	6(11.3)
	사무직	4(7.5)
	행정·관리직	3(5.7)
	전문직	16(30.2)
	주부	24(45.3)
계	53(100)	
소득	5만불 미만	11(23.9)
	5만불 - 7만불 미만	10(21.7)
	7만불 - 10만불 미만	19(41.3)
	10만불 이상	6(13.1)
계	46(100)	
주택형태	단독주택	41(77.4)
	유닛(Unit)	4(7.5)
	타운하우스	2(3.8)
	아파트	6(11.3)
	계	53(100)
침실수	2개	10(18.9)
	3개	27(50.9)
	4개	10(18.9)
	5개	6(11.3)
	계	53(100)
주택소유형태	소유	51(96.2)
	임대	2(3.8)
계	53(100)	
건축연수	1년-10년 이하	8(15.4)
	11년-30년 이하	8(15.4)
	31년-50년 이하	9(17.3)
	51년-100년 이하	19(36.5)
	101년-150년 이하	8(15.4)
계	52(100)	

주택의 평균 침실 수는 3개인 경우가 5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개와 4개인 경우가 모두 18.9%로 같았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96.2%)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년도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 주택의 건축경과 연수는 평균 54.9년이었다¹²⁾.

2. 조사대상 주택의 평면 구성

1) 거실·식사실·부엌의 연결 유형 및 만족 정도

조사대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은 〈표 3〉과 같이 분류되었다¹³⁾. 가장 많았던 유형은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형태(L·D·K; 45.3%)였으며 그 다음은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 있고 거실이 독립된 형태(L + K·D; 28.3%)였다. 현재의 연결 유형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전체적인 만족정도는 5점 리커트(Likert)로 평가한 결과 평균 4.3점이었다. 각 유형별 만족정도를 평가한 결과, 거실, 식사실, 부엌

〈표 3〉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 비율과 만족정도 N=53

유형	f(%)	만족 점수(5점 Likert)
L·D·K	24(45.3)	4.7
K + L·D	9(17.0)	4.1
L + K·D	15(28.3)	4.3
D + K·L	2(3.8)	4.5
L + D + K	3(5.6)	3.3
계	53(100)	

.L·D·K;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형태
 .K + L·D; 거실과 식사실이 함께 있고 부엌이 독립된 형태
 .L + K·D;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 있고 거실이 독립된 형태
 .D + K·L; 부엌과 거실이 함께 있고 식사실이 독립된 형태
 .L + D + K; 거실, 식사실, 부엌이 각각 독립된 형태

12) 본 연구의 조사대상 주택의 평균 건축 경과연수는 55년에 이르며 그 동안 다수의 거주자들에 의한 주택개조 및 변형이 이루어진 이유로 조사대상 주택평면 각각의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음을 밝힌다.

13) 본 조사대상 주택의 평균 침실 수는 3개(50.9%), 2개(18.9%), 4개 이상(30.2%)의 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규모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해석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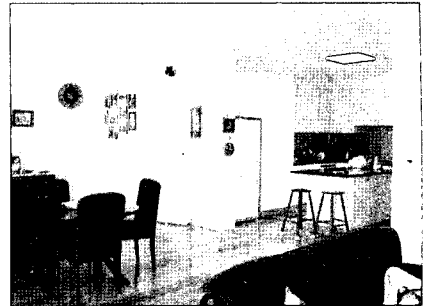
이 한 공간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에 대한 만족정도가 평균 4.7점으로 가장 높았다.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형태는 오픈 플랜(open plan)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가족의 생활을 한 곳에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그 선호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역시 이러한 점에서 오픈 플랜 유형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만족 정도 또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희망하는 부엌의 위치 및 거실과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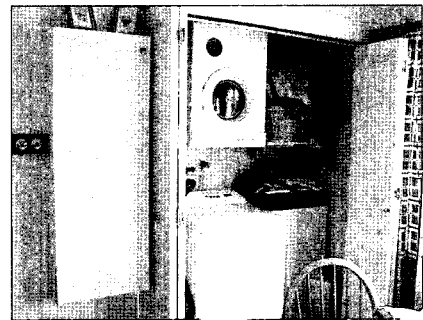
주택 내에서 희망하는 부엌의 위치는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주택의 뒤편에 있는 경우(73.5%)를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뒷마당을 보며 일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뒷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였다. 부엌이 앞 편에 있는 것을 선호(15.0%)하는 경우는 손님방문 시에 금방 응답하기 위해서 등이었다. 거실과 부엌의 통합에 대한 선호 정도는 54.7%가 통합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45.3%가 분리를 원했다. 거실과 부엌의 통합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실과 부엌을 함께 둘 경우 가족 단란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엌에서의 조리작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으로 쾌적한 단란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가족이 부엌에서의 조리 작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가족 단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3) 세탁실 계획과 조사대상자들의 요구

호주 주택에 관한 연구에서는 세탁실이 호주 주택에서 별도의 공간으로서 계획되어 왔으며 현대 주택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Lawrence, 1982). 본 연구의 조사대상 주택의 68%가 문이 달린 독립된 세탁실이 있었으며 이 외에는 주택의 구석진 공간에 접이문을 달아서 마련하거나(18.8%) 혹은 욕실에 세탁 시설을 함께 두어 겸용하는 사례(13.2%) 등이 있었다. 세탁실의 위치는 대부분 부엌 가까이에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기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세탁실에 대한 만족정도는 매우 만족이 43.1%, 만족이 37.7%였



〈그림 8〉 오픈 플랜의 예 (Kamun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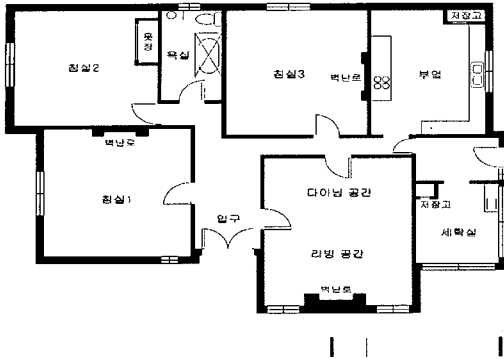
〈그림 9〉 붙박이식 다림질대와 세탁공간 (Brenda 맥)

으며 5점 Likert에 대한 평균 만족점수는 4.1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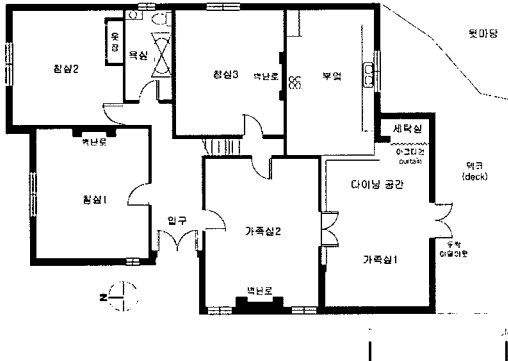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이 세탁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세탁실의 수납공간이 충분하여 집안 일에 사용하는 각종 도구들을 모두 수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세탁실의 크기가 세탁물 건조대를 두거나 다림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이 지역의 기후가 날씨 변화가 심하고 겨울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실내에서 세탁물을 건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내 공간의 혼잡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었다. 또한 세탁실 내에 작업대가 충분히 마련되어 이곳에서 다양한 가사작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 외에 세탁실의 위치가 뒷마당과 가까운 것 그리고 충분한 조명과 환기시설 등을 요구하였다.

4) 욕실 계획과 조사대상자들의 요구

조사대상자들의 욕실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개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조사대상 지역 주택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개 화장실을 욕실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그림 11〉 개조 전 공간 사용 (Brenda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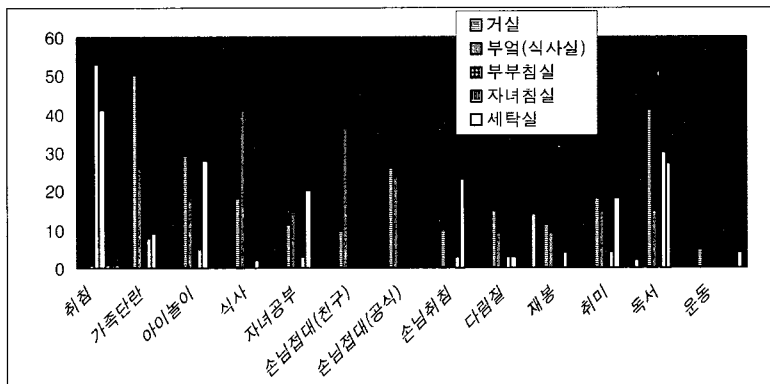
〈그림 12〉 개조 후 공간 사용 (Brenda 맥)

다. 개조는 주택을 연장(extension)하거나 2층으로 올리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 욕실과 부엌에 관련한 개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욕실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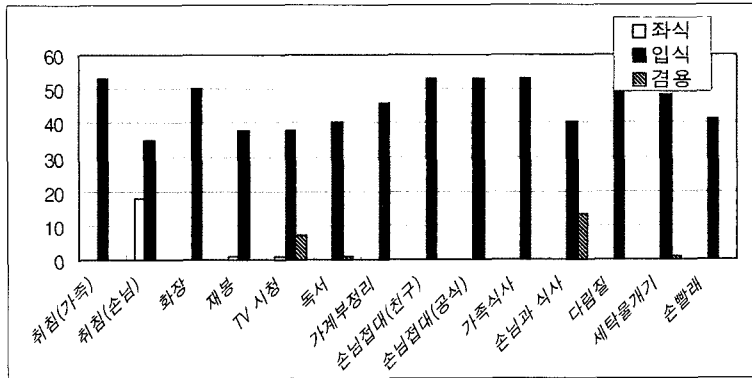
우 욕실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부엌의 경우 기존의 거실과 통합하여 거실, 부엌, 식사실을 하나로 통합한 오픈 플랜(open plan)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 이는 주택연구기관인 아키센터(Archicenter)에서 조사지역인 빅토리아(Victoria)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택개조 항목이 부엌과 거실을 통합된 오픈 플랜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외에 개조를 통하여 가족실을 개선하거나 새로 만든 경우가 6사례 있었으며 세탁실 관련 개조가 6사례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이 희망하는 개조 사항 역시 욕실과 부엌에 관한 것이 많았다. 욕실의 경우 침실부속 욕실(en suite)을 추가하거나 혹은 욕실설비를 현대화하는 것이었으며 부엌의 경우 거실과 통합된 오픈 플랜을 만들거나 수납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3. 조사대상자들의 각 공간별 주생활

조사대상자들이 각 실에서 행하고 있는 주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실에서 행하는 주요 활동은 가족단란이었으며 이 외에 주부의 독서행위와 아이 놀이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 등을 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반 수 정도(50.9%: 27사례)가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6.4%(14사례)는 세탁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식사실을 포함한 부엌에서의 주요 활동은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단란이었다. 이 외에 자녀 놀이, 자녀 공부와 주부의 독서 행위 등이 식탁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일부(18.9%: 10사례)가



〈그림 13〉 주거 공간별 주생활 내용



〈그림 14〉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 정도

부엌에서 다림질을 행하였다. 부부침실에서 두드러지는 주요 활동은 부부 취침과 독서 등이었다. 자녀 침실에서는 자녀 취침 및 아이 놀이와 자녀 공부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녀 방에서 손님취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님방을 따로 두어 손님이 취침하도록 하는 경우는 20.7%(11사례)였다. 조사대상지역에서 마당에서의 활동은 가족단란의 연장으로서 텍크(deck)는 그 바깥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넓은 뒷마당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텍크에서 가족 단란과 식사 그리고 아이 놀이와 독서 등을 행하고 있었다.

주택의 각 실별 면적의 요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특별한 요구항목은 없었으나 18.9%(10사례)가 부엌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많은 경우가 조리과 식사 그리고 가족단란을 함께 하는 오픈 플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엌 공간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조사대상자들의 각 활동별 입식과 좌식 정도

조사대상자들이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입식과 좌식 정도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취침은 조사대상자 모두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손님취침의 경우 역시 침대(44%)를 사용하거나 소파 겸 침대(26%)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거나(24%), 얇은 요와 이불을 사용(6%)하는 좌식의 형태도 볼 수 있었다. 매트리스는 주로 현재

사용하는 침대에서 꺼내 사용하고 있었다. 가사작업 중 다림질은 입식의 경향이 강하여 책상에 앉아서 다림질을 하는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세탁물 개기는 작업은 세탁실, 거실, 침실 등으로 다양하였는데 대부분(70.6%)이 서서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25.4%는 거실 소파나 침대 등에 앉아서 하였으며 2사례(3.9%)는 거실이나 가족실 바닥에서 좌식으로 행하고 있었다. 바느질, 옷손질, 재봉 등의 작업은 대부분이 식탁에 앉아서 행하고 있었다. 손빨래는 조사대상자의 87.8%가 세탁실에서 손세탁조를 사용하여 입식으로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욕실의 세면대 등에서 서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에서의 가사작업 중 야채다듬기 등을 비롯한 식사준비는 모두 입식으로 하고 있었다. 화장은 모두 입식으로 행하였는데 84%가 욕실에서 하고 있었다. 가족의 TV시청은 거실 혹은 가족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82.6%가 소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15.2%가 소파와 바닥에 앉는 것을 겸용하고 있었고 1사례가 바닥에 주로 앉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7.5%가 주로 취침 전에 침대에 앉아서 하고 있었고 32.5%는 거실의 소파에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 정리는 조사대상자의 52.2%가 식탁에 앉아서 하고 있었으며 28.3%는 책상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등 입식으로 행하고 있었다. 손님 접대는 입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웃이나 친구의 접대는 대부분 식탁(72%)에서 행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손님 접대는 식탁(48%)과 거실(소파:52%)에서

행하고 있었는데 거실의 경우가 약간 더 높았다. 평소의 가족식사와 손님접대는 대부분 식탁에서 입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많은 손님을 수용하기 위해서 길이를 늘일 수 있는 식탁을 사용하거나 혹은 식탁 여러 개를 연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접대장소를 뒷마당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식탁과 의자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 중 24.5%(13사례)는 손님들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바닥에 좌식으로 앉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5. 각 실별 바닥재 구성과 신발 착용

1) 각 실별 바닥재 구성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 구성은 <표 4>와 같다. 먼저 거실의 경우 전체를 카펫으로 한 경우가 45.3%(24사례) 그리고 나무로 한 경우가 54.7%(29사례)로 나무 바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전통적으로 거실의 바닥재는 카펫을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심미적인 면에서도 나무 바닥재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카펫을 나무 바닥재로 교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 중 카펫을 걷어내고 나무 바닥재로 교체한 경우는 모두 9사례였는데 교체한 이유는 천식 등의 질병을 우려한 건강상의 이유였다. 침실은 64.2%(34사례)가 카펫이었고 35.8%(19사례)가 나무 바닥재로 구성되어 있었다. 카펫을 사용하는 조사대상자들은 침실은 취침을 하는 곳이므로 따뜻하고 조용하며 아늑한 분위기를 필요한데 이에 카펫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부엌의 바닥재는 전체가 나무인 경우가 39.6%(21사

례), 타일인 경우가 32.1%(17사례) 그리고 리놀륨인 경우가 18.9%(10사례)였다. 나무 바닥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대상 주택의 부엌 유형이 거실과 부엌, 식사실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평가되었다. 타일은 청소하기 쉬운 특성 때문에 부엌의 바닥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타일은 현대적인 분위기를 위하여 주택 전체의 바닥재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식사 공간의 바닥재는 나무인 경우가 56.6%(30사례), 카펫인 경우가 28.3%(15사례)였다. 나무인 경우는 대부분 거실과 통합되어 있는 오픈 플랜의 경우이며 카펫인 경우는 다이닝 룸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 욕실의 바닥재는 84.9%가 타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카펫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한 결과, 아주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는 경우가 각각 37.5%로 그 만족정도가 높았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카펫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하여 달라지고 있기는 하나 카펫이 보온성과 흡음성이 뛰어나며 아늑하고 고급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카펫 사용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거실과 가족실의 이상적인 바닥재로써 나무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침실은 카펫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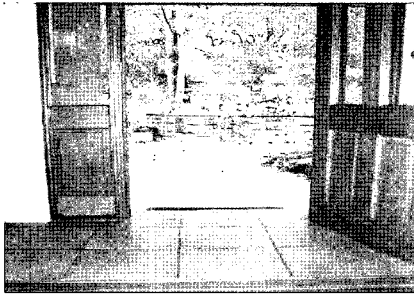
2) 실내에서의 신발 착용

조사대상자들의 41.5%(22명)가 실내에서 주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37.7%(20명)가 신발을 신고 생활하였다. 그리고 20.8%(11명)가 양쪽을 병행하고 있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이유는 그것이 신체적으로 더 편안하고 또한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경우는 뚜렷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징적인 것은 신발을 신는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신발을 벗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은 그들의 신발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손님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또한 전체에서 1명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동양인의 주택을 방문했을 때 당연히 그들의 문화에 따라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표 4> 조사대상 주택의 각 실별 바닥재의 구성

N=53

공간별 바닥재료	거실 f(%)	침실 f(%)	부엌 f(%)	식사공간 f(%)	욕실 f(%)
전체 카펫	24(45.3)	34(64.2)		15(28.3)	
전체 나무	29(54.7)	19(35.8)	21(39.6)	30(56.6)	3(5.7)
타 일			17(32.1)	8(15.1)	45(84.9)
리 놀 른			10(18.9)		5(9.4)
콜크타일			5(9.4)		
계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그림 15〉 현관바닥을 타일로 교체한 예 (Hilary 맥)



〈그림 16〉 현관입구에 신발장을 만든 예 (Caula 맥)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등의 변화된 행위에 동양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다른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침실 내에 있는 옷장 아래에 신발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현관 옆에 박스형의 신발장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2사례 있었으며 침실 이외의 신발수납 장소는 세탁실이나 지하실에 혹은 박스 안에 한꺼번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가 실내에서 슬리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겨울에 보온을 위해서였다. 조사대상자들 중 4사례는 현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신는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현관 바닥재를 타일로 교체하였다.

6.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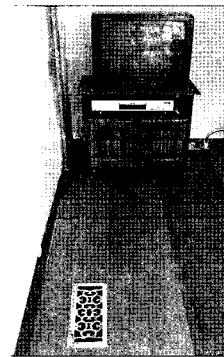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대부분 덕티드 히팅 (ducted heating: 58.2%)¹⁷⁾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표 5〉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

N=53

난 방 유 형	f(%)
덕티드 히팅	31(58.4)
가스 벽난로	9(17.0)
전기 냉·난방 겸용 에어 컨디셔너	2(3.8)
하이드로닉 히팅*	2(3.8)
전기 히터	1(1.9)
log 난로	2(3.8)
중앙난방(아파트)	4(7.5)
벽난로(OFP)	2(3.8)
계	53(100)

* 하이드로닉 히팅(hydronic heating)은 각 실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고 온수를 순환시켜 난방하는 방식이다.



〈그림 17〉 거실의 난방 공급구 (Joan 맥)



〈그림 18〉 거실의 가스 벽난로 (Gwyn 맥)

17) 덕티드 히팅은 주택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공기를 가열한 후 이를 각 실의 바닥 혹은 천장에 있는 공급구를 통하여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개 가스를 사용한다.

덕티드 히팅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4.4점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날씨 변화가 매우 심하며 시간 별 기온 차이가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덕티드 히팅은 이러한 온도 차이에 대응하여 추운 날씨에는 실내 온도를 빠르게 높이는 한편 기온이 올라갈 경우엔 스위치를 내림과 동시에 빠르게 식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이 만족 정도를 높은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서 덕티드 히팅을 택한 경우가 많은 결과 역시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자 중 바닥(온돌)난방을 경험한 경우는 8사례였으며 그 느낌이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간별 기온차이가 심한 지역의 특성상 바닥을 데우고 식히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단점으로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주택 전체보다는 욕실 등의 필요한 일부 공간만을 바닥 난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하였다.

7. 조사대상자들의 주택관련 사항의 평가

1) 각 실의 중요성 정도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거실(가족실: 42%)이었는데 이는 거실(가족실)이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서 가족단란의 중심공간이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부엌(38%)이었는데 이는 주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에서였다. 주택의 중심공간으로 잘 꾸며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간 역시 76%가 거실(가족실)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거실이 가족단란의 중심공간이면서 손님접대의 기능 또한 있기 때문이었다.

2) 주택의 조명 환경

조사대상자들 중 주택의 각 실별 조명을 교체하거나 조도를 높인 경우는 전체의 32%(17사례)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지금의 조도가 적정하며 디머(dimmer)로 조절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 주택들은 건축년도가 오래된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주택들은 대개 향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혹은 창문의 크기가 작아 실내 조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대상자들은 부엌을 제외한 대

부분의 주거 공간에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조명보다는 부분조명을 선호하였다.

3) 주거비 내용과 주거비 부담 정도

조사대상자들이 지불하는 주거비의 내용은 가스비, 전기비, 수도비, 전화비 등이며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카운실 레이트(council rate)비용을 별도로 내고 있다¹⁸⁾. 이러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정도는 조사대상자들의 39.2%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27.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점 Likert로 측정된 결과 부담 점수가 2.69점(매우 부담스럽다=1,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5)으로 조사대상자들의 부담 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주택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조사대상자들이 주택을 얻거나 구입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들은 주택의 위치, 향, 주택의 평면계획, 전망 등이었다. 즉,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주변에 학교와 쇼핑센터, 공원 등이 가까운가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주택의 향은 충분한 햇볕을 받기위한 조건으로서 조사대상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남향에 해당되는 방향은 앞쪽 정원에 햇볕을 받는 북향(North facing garden)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지역의 주택은 대부분 앞쪽에 포말 라운지(formal lounge)와 포말 다이닝 룸(formal diningroom) 등 주로 손님을 위한 실이 위치하며 주택의 뒤쪽에 가족실, 부엌, 침실 등이 위치하므로 실제로 가족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주택의 뒷부분이다. 또한 앞마당보다는 뒷마당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뒤쪽에 햇볕이 잘 드는 쪽이 더 유용하다는 점에서 북향보다 오히려 남향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고려하는 향에 대한 개념은 주택 내부가 환하며 필요로 하는 곳에 햇볕이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해석되었다. 주택의 평면계획 요소로는 침실 수, 가족실의 유무, 충분한 수납공간의 유무, 뒷마당과 테크의 유무 등이었으며 주택

18) 카운실 레이트(council rate)는 우리나라의 재산세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도로 보수와 청소 등에 사용하는데, 청구 비용은 각 지역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입 시 풍수를 고려한다는 경우가 2사례 있었다.

5)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 정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정도는 조사대상자의 73.6%가 매우 만족하였고 26.4%가 만족한다고 답하여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의 만족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과 요약 및 제언

1. 조사대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은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이 경우에 만족정도가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자들은 부엌이 주택의 뒤편에 있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뒷마당을 보며 일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뒷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조리 공간과 휴식공간을 통합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거실과 부엌이 함께 있을 경우 가족 단란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분리를 원하는 이유는 부엌에서의 조리작업과 그로인한 냄새 등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부엌과 거실의 통합에 대한 선호 정도는 조사대상 가족이 부엌의 조리 작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족 단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성 중에서 음식문화는 특성이 뚜렷하고 그 지속 정도가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거실과 부엌의 통합을 원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 지역의 음식문화는 통합형의 연결유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분리를 원하는 비율 역시 낮지 않았으므로 음식문화와 거주공간의 연결유형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타 문화권과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특정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가 주거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생활의 비교문화 면에서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편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고 있는 호주의 주택 계획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에서 세탁실은 전통적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하여 왔는데 조사대상 주택의 대부분이 별도의 세탁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엌 가까이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기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세탁실에 대하여 수납공간이 충분하며 세탁물 건조와 다림질 등의 가사작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 욕실 형태는 화장실이 욕실에서 독립하여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는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욕실과 화장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평가하였다. 거의 모든 조사대상 주택의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있지 않았는데 대부분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33.9%의 조사대상자들은 욕조에서 물이 흘러넘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있으면 욕실의 청소가 더 수월할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욕실 환경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새로운 요구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주거환경의 강화에 대한 요구와 별도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요구는 호주인의 관습면에서의 변화로서 파악되었다.

3. 각 실에서 행하는 주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거실에서 행하는 주요 활동은 가족단란이었으며 이 외에 주부의 독서행위와 아이 놀이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 등을 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가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사실을 포함한 부엌에서의 주요 활동은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단란이었으며 이 외에 자녀 놀이, 자녀 공부와 주부의 독서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부침실에서 주요 활동은 부부 취침과 독서 등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의 마당은 가족단란의 연장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데크(deck)는 그 중심 공간으로서 이곳에서 가족 단란과 식사 그리고 아이 놀이와 독서 등을 행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주공간의 면적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었으나 부엌에 대한 요구는 일부 볼 수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 주택의 많은 경우가 부엌, 식사실, 거실이 통합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엌 면적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가족 단란이 부엌 및 식사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최근 조사대상 지역에서 오픈 플랜의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은 거실과 부엌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부부침실은 부부의 사적인 활동을 행하는 개인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주 공간 계획이 조사대상자들의 관습적인 사용에 의거한 것인지 혹은 일률적인 주거 공간 계획에 의하여 현재의 사용방식이 형성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4.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취침은 조사대상자 모두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이었으며 손님취침의 경우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거나, 얇은 요와 이불을 사용하는 좌식 형태가 일부 있었다. 다림질, 손세탁, 세탁물 개기는 작업, 바느질 등의 가사 관련 작업 등은 대부분 입식이었으며 손빨래와 식사준비 등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의 TV시청은 대개 입식이었으나 일부는 입식과 좌식을 겸용하고 있었으며 가족 식사와 손님접대 역시 대부분 입식이었으나 일부가 좌식을 행하고 있었다. 좌식을 행하는 배경은 손님 접대시 입식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좌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일부는 좌식 자체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조사대상자들이 관습적으로 행하여 온 입식생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활방식의 도입 역시 가능하다고 추정되었다. 다른 문화 간의 다양한 교류가 점차로 활발해 질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생활면에서의 문화 교류에 대한 심층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5.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는 일반적으로 거실과 부엌은 나무, 침실은 카펫, 욕실은 타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거실에 나무 바닥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외에 나무 바닥재가 심미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조사대상 지역에서는 카펫을 나무 바닥재로 교체하

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내의 바닥재를 나무로 한 경우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주생활 관습 면에서의 변화로 해석되는데 여기에는 다(多)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주거문화의 교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침실의 경우에는 취침을 위하여 따뜻하고 조용하며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카펫을 선호하고 있었다. 카펫에 대한 만족정도는 높았는데 이는 카펫의 보온성과 흡음성 등의 효과 때문이며 따라서 침실 등의 공간에는 카펫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6. 실내에서의 신발 착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양쪽을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발을 벗는 이유는 신체적으로 더 편안하며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발을 신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관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관념상으로는 신발을 벗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다른 관습을 행하는 동양 문화에 대한 존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들의 신발 착탈 면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었다. 특히 신발 착탈을 고려하여 현관 바닥을 카펫에서 타일로 교체한 예 등은 이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타(他)문화를 고려한 주택의 계획요소로서 혹은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 계획에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획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7.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대부분 뜨겁게 데운 공기를 공급하는 형식의 덕티드 히팅(ducted heating)이었다. 이 방식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만족정도는 높게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날씨 변화가 매우 심하며 시간 별 기온 차이가 심한 특성이 있는데 덕티드 히팅 방식은 이러한 온도 차이에 대응하기에 용이하여 그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서 덕티드 히팅을 택한 이유 역시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부는 바닥 난방인 온돌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온돌에 대한 평가는 바닥을 데우고 식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주 공간 전체보다는 욕실 등의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덕트 히팅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난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중시한다면 본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조사대상 지역에서 온돌 등을 비롯한 다양한 난방 방식에 대한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다.

8. 조사대상자들은 거실(가족실)이 가족단란을 위한 공간으로서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으로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손님접대를 위한 공간으로서 제일 잘 꾸며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현재의 실내 조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고 전체조명보다는 부분조명을 선호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주택 선택 시 주택의 위치, 향, 주택의 평면계획, 전망 등을 고려하였고 현재 주택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택환경에 대한 인식과 만족 정도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조사대상자와 타 민족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와 다른 문화적 배경에 따른 특징적인 요구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호주교민과 호주인의 주거 문화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호주인의 주 공간 및 주생활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호주인의 주거문화 중 관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요소와 타(他)문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변화한 요소 그리고 변화 가능성을 보이는 요소들을 분류할 수 있었다. 타(他)지역의 주거문화에 대한 연구는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 계획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택 계획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他) 주거문화와의 비교 연구는 우리의 주거문화 안에서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주거문화 간의 비교 연구는 앞으로 그 연구 범위를 넓혀 보다 심층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선희(2003). 캐나다 교민의 주거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3), 109-118.
- 유태용(1999).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학연문화사.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 아모스 라포포트, 이규복 역(1985).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 이도영(1988). 한인이민가정의 주거조절: 가설검증을 통한 이론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0), 11-17.
- 이도영(1998). 미국내 한인이민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조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8), 31-40.
- 이영심, 이상해(2005). 호주인과 호주교민의 주거문화 비교를 위한 기초 연구(I) - 호주 교민의 주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07-125.
- 이현정(1992). 재미교포의 주거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봉(1988). 재미교포 주거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연구: 광역 아틀란타 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03-114.
- 정무웅(1988). 건축문화와 전통성에 관한 연구: 환경변화에 따른 공간적응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논문집 22.
- 제임스 스프래들리,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조성희(1996). 문화접변에 따른 주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9), 79-91.
- 伊東理惠(리에 이토)(1993). アメリカに居住における日本人の履床様式, 家庭學研究, 39(2), 47-56.
- 今井範子(이마이 노리코)(1986). 住様式がらみた住宅平面にする研究. 京都大學位論文.
- 今井範子(이마이 노리코)(1986). 起居様式の問題. 家庭科教育, 67(9), 94-110.
- 任喜敬, 今井範子(임희경, 이마이 노리코)(1995). 韓國都市集合住宅における洗濯慣習と洗濯關聯空間の檢討. 家庭學研究, 41(2), 55-65.

- Bechtel, R. B. (1989). Behavior in the house: A Cross-Cultural Comparison using Behavior-setting methodology. *Housing culture and design*. ED. SETHA M. LOW and ERVE CHAMBE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rochures of Housing plans of Devine (2004). Devine Building Company. Melbourne.
- Ciddor, Anna (1999). *Australian houses and buildings*. Macmillan education Australia Pty Ltd.
- Galster, G. C., & Hesser, G. W. (1981). Residential satisf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13(6), 735-758.
- Ian Evans (1985). *The Australian home*. The Flannel flower press Sydney.
- John Archer (1987). *The great Australian dream: The history of the Australian house*. Angus & Robertson, 43.
- Kim Dovey (1992). Model Houses and Housing Ideology in Australia. *Housing Studies*, 7(3), 177-188.
- Melbourne in Fact 2001 (2003). 2001 Census Statistics for local Government Areas.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 Peter Cuffley (1989). *Australian houses of the '20 & '30*. The five mile press.
- Peter Cuffley (1993). *Australian houses of the forties and fifties*. The five mile press.
- Ritsuko Ozaki (2002). Housing as a reflection of Culture: Privatised living and privacy in England and Japen. *Housing studies*, 17(2), 209-227.
- Robin Boyd (1961). *Australia's home*. Melbourne University press.
- Roderick J. Lawrence (1982). Domestic space and society: A cross-cultural stud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4(1), 104-130.
- Setha. M. Low, & Erve Chambers (1989). *Housing, Culture and Design: A comparative perspectiv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WonPil Kim, & KiHyun Lee (2003). A-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ization of living space through childhood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5(1).

(2005년 4월 30일 접수, 2005년 8월 5일 채택)